

# 횡단보도 신호등 없어 시민들 안전 위협

**연정출동 '병목 구간' 신안교 삼거리 가보니**

우회차량과 보행자 뒤엉켜 교통사고 아찔

유턴 구간 변경도 문제...경찰 "보완책 없다"

"평소에는 차량소통이 원활 하지만, 출·퇴근시간만 되면 밀려오는 차량으로 도로는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광주시 북구 신안교 삼거리 일대가 출·퇴근시간대 밀려드는 차량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신안교 삼거리 주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진·출입구와 커피전문점 등이 들어서면서 차량과 보행자들이 뒤엉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5시께 북구 신안교 삼거리 일대. 북구 신안교 삼거리 일대는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악명 높은 구간이다. 시내권인 광주역과 전남대 사거리 방향 등에서 빠져나오는 차량들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전남대 사거리 방향에서 경신여고 방향으로 향하는 직진 차량과

용봉지구 방면에서 빠져나오는 우회차량들이 뒤엉켜 차량 진입에 애를 먹었다. 용봉지구에서 경신여고 방면 우회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등도 없어 보행자들이 서행하던 차량에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또 신안교 삼거리 인근에 신축 아파트와 커피전문점 등이 들어서면서 병목 현상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들로 인해 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기에 아파트 진·출입구에 맞춰 변경된 유턴구간도 문제다. 삼거리 인근 303세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광주청은 전남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1차선 바로 뒤쪽으로 유턴구간을 옮겼다. 아파트 진·출입구로 들어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다.

문제는 출·퇴근시간 경신여고 방면 차량 정체로 유턴 공간을 확보를 하지 못해 차량 지체는 물론 불법유턴 하기

일수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씨(32)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선 유턴을 해야 하지만, 밀려드는 차량으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차가 막힐 때면 오히려 용봉지구 방면으로 빠져나가 아파트 출구로 진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 한모씨(52) "신안교 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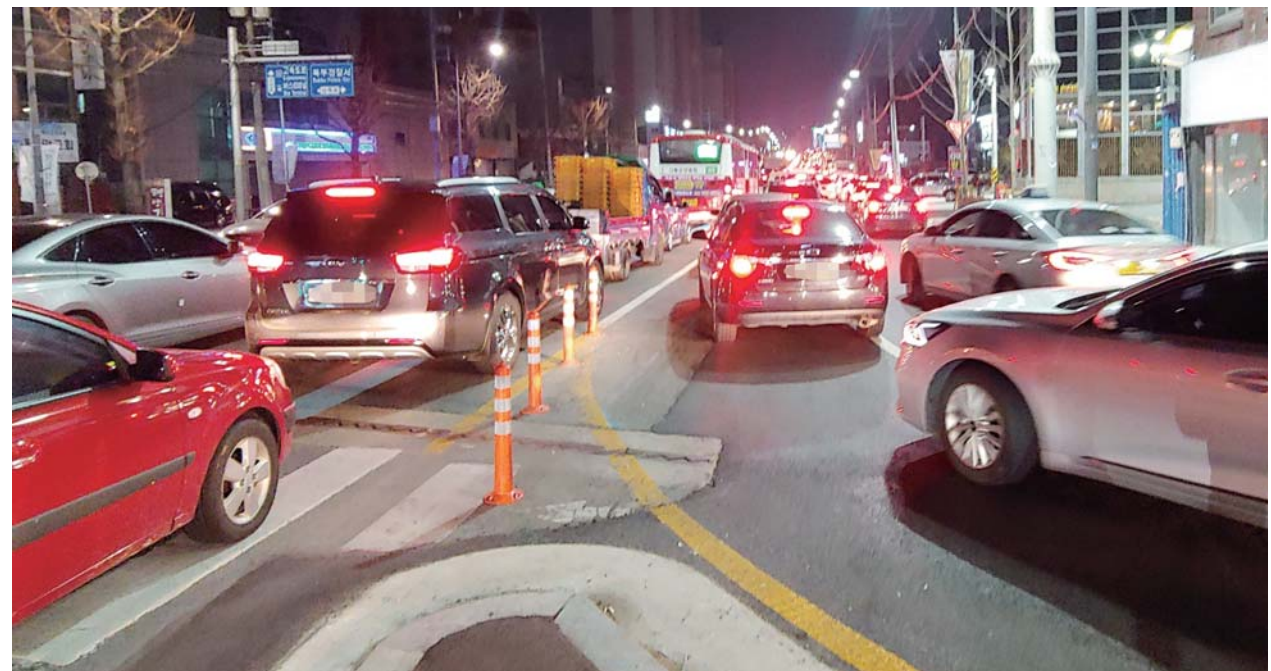
는 중흥삼거리, 용봉지구와, 광주역, 전남대학교 방면에서 오는 차량들이 몰리는 곳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돼 왔다"면서 "서로 양보하는 입장에서 운전을 하고 있지만 40분이 넘게 지체돼 불편한 건 사실이다"고 털어놨다.

보행자 김모씨(62·여)는 "아무리 우회로가 일방통행이지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 보행자 입장에서는 안전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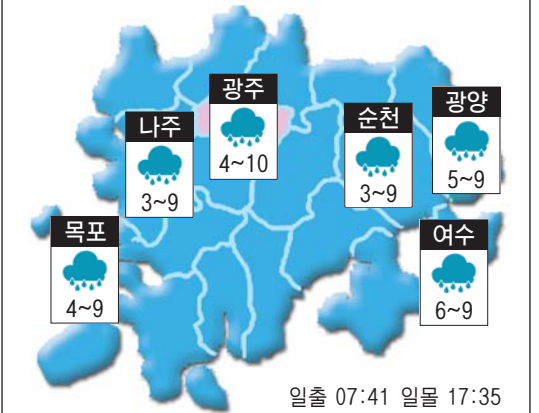
하지만 경찰은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체증은 출·퇴근 시간 광주 시내 모든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신안교 삼거리의 문제만 아니다"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지난 3일 오후 7시 광주 신안교 삼거리 일대 도로가 용봉지구 방면에서 빠져나오는 우회 차량과 경신여고 방면의 직진 차량이 뒤엉키면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 오늘의 날씨



일출 07:41 일몰 17:35  
월출 14:03 월몰 02:54

장성	2~9	흑산도	7~12
담양	2~9	구례	0~9
화순	3~10	곡성	0~8
영광	2~9	완도	6~11
함평	3~10	강진	3~10
무안	4~10	장흥	3~9
영암	3~10	해남	4~10
진도	4~11	고흥	3~8
신안	3~11	보성	1~8

목포	만조 10:28 22:29 간조 03:28 16:19	여수	만조 05:56 18:00 간조 11:54 ---
----	----------------------------------	----	--------------------------------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숫자는 증가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50명으로 지난 2018년 75명에 비해 25명 줄어 약 33.3% 줄었다. 이는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큰 수치다. 이로써 2018년 36% 감소율을 기록한 광주는 2년 연속 감소율 1위를 기록하게 됐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대비 26.1% 줄었다.

반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2018년 4명에서 2019년 5명으로 늘었다. 사고 건수도 2018년 7,432건에서 지난해 8,078건으로 8.7% 증가했다.

광주경찰청은 관내 사고다발지역 262곳에 경찰력과 순찰차를 집중 배치했다. 시와 일선 자치구·교육청 등 11곳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시설개선 및 홍보·교육에도 매진했다.

앞으로 광주경찰청은 최근 3년 사망사고와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해 시설개선, 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 보행 편의 환경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속도 줄이기와 방어보행 등 교통문화 개선 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유일하게 증가한 음주운전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주간·야간·심야 시간대 '스프링' 음주단속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실시했더니 성과로 나타났다"며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추가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조 갈등 장기화

병원 측 농성장 건물 단전...농성 27일째

전남대병원 측이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장의 건물 전기와 난방 공급을 끊으면서 양측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5일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행정동 건물 전기와 난방 공급을 끊었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달 19일부터 행정동 병원장실과 복도에서 ▲병원 측이 자회사 설립을 유도하는 설문조사 중단 ▲직접 고용 합의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병원 측이 행정동 건물의 전기를 끊는 강력한 조치에도 노조는 27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병원 측이 행정동 단전 조치에 돌입하자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 투쟁 중인 고령층 노동자들은 혹독한 추위에 내몰리게 됐다"며 "이 삼용 병원장과 더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병원 측은 노조 농성은 불법 집거라고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노조 측에 사전에 행정동을 단전하겠다는 공지를 한 상황이다"면서 "노조원들이 건물 내부에서 취사도구나 전열기를 사용해 안전상 위험한 점이 있어 관리자가 없는 야간과 휴일만 단전조치를 고려 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 자택서 남편 살해 60대 아내 체포

경찰, 살인 동기 조사...구속영장 신청

다툼을 벌인 뒤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1·여)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서구 금호동 자택에서 남편 B씨(55)를 살해한 혐의

다.

A씨는 거실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가장용 소화기로 추정되는 단기를 이용해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외출을 마친 뒤 귀가해보니 남편이 욕실에 쓰러져 있었

다"고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족 조사 과정에서 A씨 진술이 B씨의 발견 위치·외상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한 경찰은 범행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오는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종찬 기자

## 광주·전남 8일까지 최대 80mm 비

6일부터 8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5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6일 오전 비가 시작돼 8일까지 이어지겠다.

6~8일 예상 강수량은 30~80mm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 기온은 7~13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부 남부 1.5m~2.5m로 높게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리는 비로 가시거리가 짧아져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나라 기자

# 공기청정기 전문 대표기업 DK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는 물론, 탈취까지 환경에 맞춰 진화한다



mini air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플라즈마 더블케어로 한번 더!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형, 중형, 대형 공기청정기 제조 및 A/S | 문의 1544-1154 | www.e-dk.co.kr

